

한·중 여성작가 작품에 드러난 양치현모론 인식의 자기모순적 양상과 그 의미

서록지*

〈차 례〉

1. 들어가며
2. 긍정론의 추이와 여성주체성과의 괴리
3. 비평론의 추이와 모성본능의 내적 갈등
4. 나오며

RETRACTED

[국문초록]

본고는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대표 여성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대 여성작가 소설에 드러난 양치현모론(賢母良妻論) 인식의 자기모순적 양상과 그 의미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치현모론과 신현모양치론은 당대 양국의 주류 여성 교육정책으로써 여성 담론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여성을 모범적인 신식 가정의 경영자로 간주함으로써 남편을 성공시키는 내조자의 역할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여성작가들은 사회의 분위기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양치현모론에 상이한 태도를 취하였다.

긍정론의 경우 양치현모 사상의 영향을 받은 나혜석과 빙신(冰心)이 그것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혜석은 양치현모사상과 개인적 성취 및 주체성과의 충돌을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 반면 빙신은 여성의 개인 가치가 가정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비평론의 경우 김일엽과 립수화(凌叔華), 루인(廬隱) 등이 양치현모 정책이 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기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사상을 비판하였다. 김일엽은 그의 작품에서 양치현모론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꿈이라는 무의식 세계에서 마음 깊이 잠재된 모성애를 드러냈다. 립수화와 루인은 독신주의를 이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모성을 언급하는 경우, 두 작가는 방황하는 태도를 드러냈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다. 양치현모론을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입장들은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아직 낯선 시대에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모색과정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긍정론과 비판론을 각각 일정한 가치를 지닌 신여성 담론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신여성, 양치현모론, 자기모순성, 여성주체성, 모성

1. 들어가며

본고는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대표 여성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대 여성작가 소설에 드러난 양치현모론(賢母良妻論) 인식의 자기모순적 양상과 그 의미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신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신국민의 어머니’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성 교육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양치현모론’이라는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양치현모 사상은 가정의 중심으로서의 아내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하고 현모 이전에 양처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현모양처 사상과 차별되었다. 이 사상은 현모양처론에 비해 더 근대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현모’를 강조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인 가문이나 가계보다 ‘양처’를 강조하는 부부 중심의 수평적 핵가족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이 사상은 근대성에 접근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전통 유교적 여성관²⁾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남성 지식인들은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아 일본을 통해 다양한 근대 사상을 수입하면서 ‘양치현모론’을 함께 수용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순량한 국민을 양성하고 통치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식민지 교육정책을 실행하였다. 일제가 추진한 한민족 여성 교육정책의 방향 역시 일본인과 동화하는 조선인을 길러낼 어머니를 양성하

1)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신여성’의 주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51쪽.

2)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여성학-종교와 가부장제』 창간호, 한국여성학회, 1980, 11쪽.

기 위한 식민화, 동화정책의 일환이었다. 구체적으로 봉건적 가부장제에 입각한 양치현모 교육이 있었다.³⁾ 이 교육정책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대 남성 지식인들은 국권 상실, 부권 상실의 시대에 가부장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 정책을 수용하였다. 식민지 통치하에서 가정은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남성지식인들은 여성을 “가정의 수호자, 전통의 담지자로서 위치 지웠으며, ‘새 국민의 모성’에 대한 강렬한 시대적 요청을 담아 ‘양치현모’에 대망을 낳았다.”⁴⁾ 이처럼 양치현모론은 한국 남성 지식인들과 일제의 공통 인식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여성에게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존재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한정시켰다. 주체의식을 자각하고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그곳에서 발화하려 한 신여성들은 이 사상이 자신들의 주체성을 말살하는 부주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나혜석과 김일엽을 비롯한 한국 신여성들은 어머니가 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에게 강요된 양치현모 사상과 여성의 개인적 주체성 사이에 생긴 갈등에 직면하여 다양한 논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청나라 말기 유신지사(維新之士)들은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서양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유신운동을 하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신지사들은 민족적 위기 극복과 국권 회복을 위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신현모양처론’이라는 여성 교육정책을 주장하였다. 1898년 리양치차오(梁啟超)는 『여자 학당의 창립을 건의하여(倡設女學堂啟)』에서 “남편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키운다. 집안일을 하고 농사를 잘 짓는다.(上可相夫, 下可教子, 近可宜家, 遠可善種)”⁵⁾고 주장하며, 학교에서 여성이 지식을 습득한 후 남편에게 훌륭한 내조를 하여야 ‘신국민’인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3) 박용옥, 『일제의 식민지 여성 정책과 민족문제』, 남인숙 외 9인 지음, 『여성과 한민족』, 학문출판(주), 1996, 21~34쪽.

4) 안태윤, 『일제 하 모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51쪽.

5) 梁啟超, 『倡設女學堂啟·飲冰室合集』第1冊, 中華書局, 1941, 37쪽.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이 성공한 후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자신의 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황제가 되려고 도모했다. 그는 『포양조례(褒揚條例)』(1913)에서 여성의 ‘정조’와 ‘효도’를 강조하며, 여성 교육의 목적은 여성을 현모양처가 되게 하여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안스카이가 죽고 중화민국이 회복된 후에 ‘신현모양처론’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 최대 여성 잡지 『부녀잡지(婦女雜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17년부터 ‘여학상각(女學商權)’⁶⁾이라는 칼럼을 게재하여 신식 ‘현모양처관’을 논의함으로써 ‘신현모양처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구적 남성 지식인들은 여성해방을 봉건적 가부장제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성을 가정에 한정시키는 교육정책을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후스(胡適)는 ‘양처현모를 초월한 인생관(超於良妻賢母的人生觀)’⁷⁾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에게 강요한 현모양처 역할을 비판하면서 여성의 자립과 개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사오권(葉紹鈞)도 ‘신현모양처론’을 규탄하는 입장에서 ‘여자가 양모현처(良母賢妻)가 되어야만 한다면, 남자는 양부현부(良父賢夫) 되어야만 한다’⁸⁾고 주장하였다.

또한 엘렌 케이(Ellen Key)의 모성론의 번역·소개는 중국 문단에서 ‘신현모양처론’에 관한 논쟁을 가열시켰다. 엘렌 케이는 모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여자의 천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과 모성 및 자녀 양육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관해 논쟁을 촉발시켰다.

후스를 비롯한 선구적 남성 지식인들의 영향으로 자각한 빙신(冰心), 링수화(凌叔華)와 루인(盧隱) 등 중국의 대표 여성작가들은 공적 영역에 보다 쉽게 진출하기 위해 백열화된 현모양처론 논쟁에서 조심스럽게 ‘신현모양처론’

6) 이 칼럼에서 중국여성교육에 관한 논의는 遊桂芬의 『論女子教育當註重道德』(1卷6號), 王三의 『敬告全國女學校』(1卷9號), 意湘의 『今後吾國負教育負責者之真責任』(2卷9號), 嚴琳의 『我之女子教育觀』(2卷10號), 張登仁의 『說女子教育』(5卷5號) 등이 있다.

7) 胡適, 『美國的婦人』, 『新青年』 5卷3號, 1918.9.15.

8) 葉紹鈞, 『女子人格問題』, 『新潮』 제1권 제2호, 1919.2.1.

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중 1세대 여성⁹⁾작가들의 양치현모론 인식에 관한 연구는 나혜석과 병신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언급된 것¹⁰⁾ 외에는 전문적인 연구 축적이 미진한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신여성의 “양치현모관” 인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나혜석과 김일엽의 양치현모론 인식의 변화,¹¹⁾ 혹은 그들의 양치현모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¹²⁾에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나혜석과 김일엽의 작품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들의 양치현모론에 대한 인식은 긍정과 비판 사이를 오가며 자기모순적 성격을 드러낸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는다. 한편, 중국 여성작가들의 ‘신현모양치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¹³⁾ 그러나 당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현모양치관에 대한 자기모순적 인식도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모양치관을 의심하고 갈등을 겪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당대 여성문학¹⁴⁾이나 식민지 시기¹⁵⁾에 관한 연구에 포괄되어 전문적인 연구는 부족

RETRACTED

- 9) 김은희, 『清末 이래 1930년대까지의 中國의 女性 想像 - 賢母良妻論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 63집, 2013, 148쪽.
- 10) 沈麗瑛, 『冰心與羅惠錫早期小說比較研究』, 對外經濟貿易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_____, 『冰心, 羅惠錫, 宮本百合子文學의 女性意識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요민나, 『나혜석과 冰心の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에 대한 비교연구 - 1910~30년대의 작품을 중심으로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1)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김수연, 『羅惠錫의 自己成就慾과 母性과의 關係 研究』,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이태숙,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 12) 김미영, 앞의 논문; 송명희, 『복종과 인내의 에토스에서 분노의 파토스로 - 김일엽의 『자각』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제142권, 2019, 166~185쪽; 전정연, 『식민지 시대 여성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 13) 潘延, 『現代版賢妻良母 - 冰心女性觀探析』, 『蘇州鐵道師範學院學報』, 2001, 38~42쪽; 崔銀晶, 『重建家庭與女性關係 - 以冰心, 陳衡哲為中心』,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2, 111~126쪽; 馬美愛, 『“五四”女作家筆下“賢妻良母”新內涵』, 『湛江師範學院學報』, 2004, 39~42쪽; 劉延紅, 『女性解放與賢妻良母角色 - 冰心筆下的女性形象的啟示』, 『揚州大學學報』, 2009, 56~59쪽; 劉傳霞, 『冰心創作的“新賢妻良母主義”及其建構』, 『重慶社會科學』, 2013, 70~75쪽.
- 14) 騰玉敏, 『五四婚戀小說的敘事與性別』,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周文曉, 『五四新女性角色衝突與文學寫作 - 以“後五四”時期的女性問題為中心』,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張韋華, 『五四一代女作家寫作的自我想像』,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15) 朱文璐, 『中國現代文學中的母親形象初探』, 西北大學碩士論文, 2005; 馮舒潔, 『五四女作家小說中

한 실정이다.

본고는 한국의 나혜석과 김일엽 그리고 중국의 빙신, 링수화, 루인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한국·중국의 여성 작가는 모두 유복한 성장과정과 평탄한 결혼생활을 겪었으며 여성 문인으로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렸고 사회활동가로서 사회적 명망을 얻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트 문인으로서 이들의 소설이나 산문에 드러나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은 당시의 일반적인 여성과 비교할 때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양처현모론 긍정론’에 드러난 주체성의 모순과 ‘양처현모론 비판론’에 드러난 모성의 내적 갈등을 통해 그들이 가진 양처현모론 인식의 자기모순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 한·중 여성 담론의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1920년대 한·중 양국의 시대상과 여성관을 재조명할 수 있다.

RETRACTED

2. 긍정론의 추이와 여성주체성과의 괴리

양처현모론과 신현모양처론은 현대 한국과 중국의 주류 여성 교육정책으로써 양국의 여성 담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여성들 모범적인 신식 가정의 경영자로 간주하여 남편을 성공시키는 내조자의 역할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여성 교육 제도는 당시 신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나혜석과 빙신은 『경희(瓊姬)』(1918), 『이혼고백장』(1934)과 『두 가정(兩個家庭)』(1919), 『가을비와 가을 바람에 슬픔이(秋風秋雨愁煞人)』에서 양처현모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야말로 가정을 개조하거나 구여성을 계몽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각함으로써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여성이 집안일을 못한다는 당대 사회의 편견과 비난에 반발하기 위해

의母性書寫』, 南京師範大學碩士論文, 2012; 戴麗娜, 『論五四女作家對賢妻良母概念的“誤解”』, 暨南大學碩士論文, 2016.

나혜석은 소설 『경희』에서 구여성보다 과학적이거나 효과적으로 집안일을 할 줄 아는 신여성 경희를 내세웠다. 신교육을 받는 여학생들이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었다. 나혜석은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 집안일을 잘 하는 부지런한 여학생 경희를 수남 어머니의 며느리와 대비시켰다.

(며느리가) 바늘을 쥐어주면 곳 즐고 안졌고 밥을 하려면 죽은 쑤어 노느라 거귀 다가...(중략)...경희의 부끄러웠 거슬 볼 썩에 나는 왜 저런 민첩한 며느리를 얻지 못했는가 하며 한심을 쉬우는 거슨 즈연한 人情이리라. 그럼으로 이리케 멀건 이 안져서 경희의 김치 담그는 이 말을 흐는 양을 보며 썩 썩장사가 한참 썩들고 간 뒤에 간단한 이 말을 흐는 썩헤 한심을 쉬우는 그 얼골은 참아 볼 수가 업다.¹⁶⁾

수남 어머니의 며느리는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르는 게으른 여자다. 그녀와 대조적으로 선화가 경희는 빨래와 바느질을 잘하고, 이러한 양복 짓는 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성실하고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대조되는 이유는 신식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 때문이다. 경희는 여학생은 집안일을 할 줄 모른다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김치를 담그는 경희의 모습을 보면서 수남의 어머니는 경희와 같은 며느리를 얻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힘 있게 칼자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決心이나 흐는 것 잣다. 경희는 곳게 盟誓 흐였다.

「내가 가질 家庭은 決코 그런 家庭이 아니다. 나 썩 아니라 내 子孫, 내 親舊, 내 門人들의 뒷들 家庭도 決코 이리케 불행 흐지 안는다. 노나 내가 썩 한다.」 흐였다.¹⁷⁾

16) 나혜석, 『경희』, 서정자 엮음, 『나혜석 전집』, 푸른사상, 2013, 155쪽.

17) 나혜석, 『경희』, 서정자 엮음, 위의 책, 155쪽.

이주머니의 설움의 원인을 잘 아는 경희는 이를 동정한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불행이 초래되는 이유는 가정에 무식하고 게으른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살림살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지런한 신여성과 무식한 구여성을 대조함으로써 나혜석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계적인 가사노동과 달리, 경희는 일본 학교에서 배운 근대적 지식들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집안을 청소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근대적 교육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 경희의 掃除 方法은 前과는 전혀 달나다. 前에 경희의 掃除 方法은 機械的이었다. 東쪽에 노릇듯 祭器며 서쪽 벽에 걸린 표주박을 썰고 문질러서는 그 노릇듯 자리에 그딴로 노흔 줄만 알았다. 그리서 잇던 겹의줄만 엮고 싸혔든 문지만 터꾸만 이리나 掃除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掃除法은 달나다. 建造的이고 應用的이다. 家政學에서 淸혼 秩序, 衛生學에서 淸혼 政理 소圖書 時間에 淸혼 色과 色의 調和, 音樂 時間에 淸혼 長短의 音律을 利用 하야 只今식지의 位置를 全혀 쓰더 고치게 된다. 瓷器를 陶器 엽헤다도 노하 보고 칠첩 반상을 漆機에도 담야 본다. 주발 맞헤는 주발보다 큰 사발을 맞쳐도 본다. 흰 銀鏡반 위로 노르소름흔 종골방아치도 느려본다. 큰 항아리 다음에는 瓶을 논는다. 그리고 瓶에는 淸淸한 다락 속에서 淸지 淸음식에 淸살을 淸흐렸을 淸 외라 淸日 淸을 淸히고 淸除 하는 淸슨 淸族의게 淸를 淸讚의 淸報酬를 淸을나 淸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달나다. 경희는 淸淸흔 속에서 淸 몸이 淸리저리 淸動케 되는 淸서 淸如干 淸味스럽게 淸角지 淸안았다.¹⁸⁾

위 인용문은 집안 청소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응용하는 경희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이 가정학에서 배운 질서, 위생학에서 배운 정리, 도화 시간에

18) 나혜석, 「경희」, 서정자 엮음, 위의 책, 162쪽.

배운 색과 색의 조화, 음악 시간에 배운 장단의 음률을 잘 이용해야 다락 벽장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안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희는 지루함보다는 즐거움과 미감을 느낀다. 이러한 “노동의 즐거움과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까지도 결국은 교육의 많고 적음에서 기인된다.”¹⁹⁾ 즉, “근대 교육의 가치적 우월성이 가사노동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²⁰⁾

이처럼 신식 교육을 받는 여성이 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을 구여성보다 잘 이행할 수 있다는 나혜석의 인식은 당대 주류였던 여성 교육정책인 양치현모론의 영향 때문이다. 이는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의 혜택을 받았던 나혜석이 선구자의 역할을 잃어지고 여학생이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이기 위해 했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위한 교육을 받은 여성은 졸업 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고 다시 가정 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신여성들의 주체성이 가정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이러한 주체성이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들이 지향하던 주체의식에 걸맞은지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이유이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면서 나혜석은 모성과 예술가로서의 성취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자신이 지향하던 현모양처론과 자기 주체성 사이에 균열을 겪었다.

넘우나 억울하였다. (중략) 나는 험 일이 만했다. 아니 꼭 해야만 알 일이 不知其數이다. (중략) 나는 果然 所謂 專門學校까지 卒業하였다 하나 남이 알가 보아 겁나도록 事實 虛送歲月의 學窓時節이었고 結局 有名無實의 無常識한 데서 免할 수 업는 몸이 되었다. 人生을 悲觀하며 朝鮮사람을 咀呪하고 朝鮮 女子에게 失望하였었다.²¹⁾

19)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연구」, 『비교문학』 20, 한국비교문학회, 1995, 122쪽.

20) 송명희, 「신여성 작가의 소설에 재현된 신여성과 구여성의 관계 - 나혜석·김명순·김일엽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제146호, 2020, 87쪽.

21) 나혜석, 「母된 感想記」, 서정자 엮음, 앞의 책, 436~437쪽.

나혜석은 『모(母)된 감상기(感想記)』(1922)에서 임신, 출산, 육아 과정을 경험하며 어머니가 되는 일이 직업적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형상화하였다. 육아하는 과정에서 나혜석은 잠을 자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손상돼서 고통받으며 자식을 “모체(母體)의 실점을 세이키는 악마(惡魔)”²²⁾로 간주하였다. 이에 그는 모성이 천연적인 것이 아닌 경험과 시간을 경해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모성신화를 깨뜨렸다. 나혜석의 이러한 복잡한 심리는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가 제시한 어머니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의 심리,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딸의 심리라는 ‘모성공포증(Matrophobia)’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라는 역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에서 생겨나는 자이분열로 볼 수 있다.²³⁾

비록 나혜석은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신화화되고 왜곡된 모성을 비판했지만, 여성에게 강요된 전통적 모성 이데올로기만을 부정할 뿐이었다. 그는 모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모성과 성취 사이의 갈등을 주목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양치현모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발화하였다. 이 점은 이혼 후 자신의 심리를 고백하는 『이혼(離婚) 고백장(告白狀)』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나혜석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듣자마자 말을 덧붙이지 않고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일 밤 자신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몹시 후회하였다.

“저는 자식들 前程을 보아 못하겠어요.”

“에켈 케이 말에도 不和한 夫婦 사이에 길느는 자식보다 離婚하고 새 家庭에서 길느는 자식이 良好하다지 아니 했는가”

“그거슨 이론에 지나지 못해요. 모성애는 존귀하고 위대한 거시니까요. 모성애를 잃는 예니도 불행하거니와 모성애에 길니지 못하는 자식도 불행하외다. 이거슬 이는 이상 이는 이혼은 못 하겠어요. 옴바 중재를 식혀주세요.”²⁴⁾

22) 나혜석, 『母된 感想記』, 서정자 엮음, 위의 책, 447쪽.

23)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292~293쪽.

위 인용문은 나혜석이 모씨(某氏)에게 달려가 남편과의 이혼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이다. 엘렌 케이의 '자유이혼론'은 당시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쳐서 신여성들의 여성해방 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엘렌 케이의 자유이혼론에 따르면 사랑이 사라졌을 때 도덕적이거나 법률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강제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심령과 생식에도 위배되며, 자녀의 본성과 운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²⁵⁾ 엘렌 케이의 사상을 수용한 나혜석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듣자마자 바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전정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모성을 촉발하여 엘렌 케이의 사상이 단지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을 잃은 불행한 자식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현모양처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지만, 결국 남편의 결심에 의해 실패하였다.

나혜석은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양치현모론을 긍정하고 수행하였다. “한 집 살림간사를 敏捷하게 하고 많은 時間을 이용하는 것을 反對할 사람은 없을 것이요. 나는 快코 家事를 범연히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업섯 습니다.”라는 문장처럼 나혜석은 11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자기성취보다 현모양처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였다. 이는 나혜석이 양치현모론을 긍정하는 내용이지만, 현모양처의 생활과 여성의 주체성 간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나혜석은 “母性愛는 女性에게 最高 幸福인 同時에 最高 不幸한 거시 되고 마렸습니다”²⁶⁾라고 한탄하였다.

상술한 바처럼 나혜석은 결혼 전 왜곡된 여학생의 이미지를 바로잡으면서 여성들의 교육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양치현모론에 입각한 ‘경희’라는 인물을 신여성의 본보기로 내세워 신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 하였다. 이덕화는 이에 대해 자신이 선각자임을 자처하는 나혜석의 ‘슈퍼우먼 콤플렉스’가 작용한 결과로 간주하였다.²⁷⁾ 그러나 나혜석은 임신, 분만, 육아를 직

24) 나혜석, 『離婚 告白狀-靑邱氏에게』, 서정자 엮음, 앞의 책, 509~510쪽.

25)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9, 중국사학회, 2012, 151쪽 참조.

26) 나혜석, 『離婚 告白書(續)-靑邱氏에게』, 서정자 엮음, 앞의 책, 521쪽.

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지향하던 양치현모론과 개인성취 사이의 부조화를 의식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모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성취보다 현모양처의 역할이 우선한다고 여겼다. 이로써 나혜석은 양치현모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좌절된 주체성으로 인해 자이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빙신은 『두 가정』과 『가을비와 가을바람에 슬픔이』에서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야말로 남편의 사회사업을 내조해주고, 자녀를 과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빙신은 나혜석처럼 『두 가정』에서 무식한 구여성과 ‘신현모양처’형 신여성을 대조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여성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두 가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소설은 대학생 ‘나’가 ‘가정과 국가의 관계’라는 강연을 듣고 귀가 한다는 장면부터 시작함으로써 처음부터 소설의 주체를 전달한다.

가) 부엌의 벽은 기름과 연기로 새카맣게 그을어 있었다. 바깥 문에는 깨진 화분 따위의 여러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마당에는 몇 가지 꽃들이 걸려 있었다.……이 때 천부인(陳夫人)이 집안에서 나오더니 한 손으로 머리를 발아 올리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잠에 취한 눈으로 멍하니 있었는데, 용모는 그런대로 아름다웠으나 몹시 유약하고 게으른 모습이었다.²⁸⁾

나) “집에 돌아와 보면 집안 꼴은 형편없이 어지럽혀 있고, 자식들은 울고 짜고, 정말이지 날 몇 배는 더 우울하게 만들어. 내 안사람은 고관대작의 귀한 딸이어서 집안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 매일 같이 그저 집 밖으로나가서 파티어나 집사람은 도모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여권’이니 ‘평등’이니 ‘자유방임’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지껄여대.……이렇게 집안 형편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자식들은 나날이 바르없어져 가다보니 내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7) “나혜석의 ‘슈퍼우먼 콤플렉스’는 가정 내의 모든 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신을 내면화시키고 또 근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민지 지배 담론에 의해 형성된 서양 중심의 가치관이 내재해 있다.” 이덕화, 『영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초기 해방 두 여성 작가들의 여성성의 실천적 의미 비교연구』, 여성문학연구, 2006, 309쪽.

28) 冰心, 『兩個家庭』, 卓如編, 『冰心全集』, 海峽文艺出版社, 1999, 12쪽.

네!”²⁹⁾

다) 가운데 방으로 들어서자 창밖은 짙은 나무 그늘로 가려져 있었고, 서양식 의자와 탁자 및 개랑 피아노 한 대, 골동품 몇 점과 화초 화분 몇 개, 그림과 사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것이 무척이나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오른 쪽에 있는 문 하나는 열려있었는데, 그 안에는 책상이 몇 개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동서양의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맞은 편 의자는 아치안(亞茜)이 앉는 의자 같았다. 내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셋째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면서 말했다.

“일요일이라 몸이 있나보구나!”

“네, 그런데 오빠는 뭘…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세요?”

“바쁘긴. 그저 파 같이 책 한 권을 번역했을 뿐인데…뭘”

책상에는 책 두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원문이고 하나는 셋째 오빠가 구술하고 편이 적은 필기였다. 책상 저쪽에도 이미 번역된 책 몇 권이 쌓아 있었는데 모두 아치안의 필체였다.³⁰⁾



라) “난 한 번도 귀신 이야기나 비참한 이야기를 해서 아이의 여린 머리를 자극한 적이 없거든. 설령 날이 어두워진다고 하고, 그 아인 그 어둠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무얼 무섭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³¹⁾

가와 나)에 제시된 것은 근대 교육을 받지 않고 게으르며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남편을 무시하며, 매일 꾸미는 것과 사교에만 열중하는 구여성 천부인의 모습이다. 다)와 라)에서 부각된 것은 신식 교육을 받고 집을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을 내조해줄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신현모양처형 여성 아치안의 모습이

29) 冰心, 『兩個家庭』, 卓如編, 위의 책, 17쪽.

30) 冰心, 『兩個家庭』, 卓如編, 위의 책, 14쪽.

31) 冰心, 『兩個家庭』, 卓如編, 위의 책, 16쪽.

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신여성이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며, 무식한 구 여성은 가정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작가의 주장을 볼 수 있다. 천후아민(陳華民)은 사회적 지위나 월급 수준 등의 여러 측면에서 야치안의 남편에 비해 월등하다. 그러나 야치안의 남편은 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한다. 신현모양처형 아내 때문이다.³²⁾ 무식하고 게으른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천후아민은 야치안의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술에만 의존하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가을비와 가을바람에 슬픔이』의 주인공 잉운(英雲)은 신식 교육을 받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한 신여성이다. 그러나 부모의 강요 때문에 잉운은 부유하지만 구식 가정인 이모네 오빠 쓰찌(士芝)와의 혼사를 정하였다. 잉운은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졌다.

RETRACTED

“...(쓰찌) 집안 환경을 보고 읽고, 오로지 배워서 새로운 지식에는 아무것도 몰라. 지도상의 등저남북도 거의 모르니 더 말할 나위도 없어. 그리고 호강스러운 도련님의 습성이 물어나고 있어. 근데 이게 쓰찌의 잘못이 아니야. 오늘날의 세계와 사회에 처해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에게 진학하라고 열심히 권유했어. …… 하늘이 나를 일부러 이 어두운 가정에 두었거나, 내가 정리해서 개조할 까봐. 비록 집안일은 내 손에 없지만, 열 몇 명의 제수들의 교육은 더욱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들과 연락하고, 천천히 새로운 지식을 그들의 작은 머릿속에 주입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³³⁾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잉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조로 남편이 자각하는 것을 도와주고 동생들을 최대한 가르침으로써 구식 가정에서 신식 현모양처 역할을 한다. 기존 인습이 완강한 구식 가정에서 잉운의 가정 개조 기획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잉운을 더욱 괴롭게

32) 요민나, 앞의 논문, 42쪽.

33) 冰心, 『秋風秋雨愁煞人』, 앞의 책, 35~36쪽.

만든다.

물론 이 소설은 여성을 가정 안에 한정시키는 결혼 생활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하려는 욕망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방황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빙신은 주체성 실현과 신현모양처론과의 갈등을 봉건적 가부장제가 초래한 문제로만 간주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각성한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국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빙신의 신현모양처론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⁴⁾ 그에게는 가정에 헌신하는 신여성이야말로 여성의 진정한 개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빙신의 소설을 살펴보면, 그는 시종일관 개인적 가치의 실현이 남편의 사업이나 자녀 교육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³⁵⁾ 이런 점에서 여성들의 가치 실현은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다. 남편의 사업이나 자녀의 교육이 실패한다면 여성의 주체성과 개인적 가치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빙신이 지향하던 이러한 여성의 가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현모양처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을비와 가을바람에 슬픔이』의 여주인공 잉운은 남편과 시댁의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구식 가정에서 신식 현모양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회의하며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빙신은 신여성들의 이러한 회의와 절망을 가부장제가 초래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었다.

또한 빙신의 신현모양처론은 1920년대 중국을 휩쓸고 있었던 엘렌 케이의 ‘모성관’과 무관하지 않았다. 엘렌 케이는 모성(motherliness)을 중시하고 여자의 천직(天職)으로서 모직(motherhood)을 강조하였다. 엘렌 케이의 모성론의 사상적 출발점은 ‘아동(兒童)’에 있다. 이 사상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정치나 사회사업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이에 의해

34) 沈麗瑛, 『冰心, 羅蕙錫, 宮本百合子文學的女性意識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29쪽.

35) 崔銀晶, 앞의 논문, 124쪽.

중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적 자립과 모성의 보호 및 자녀 양육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엘렌 케이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녀의 양육과 가사 돌보기라는 ‘母職’과 ‘妻職’이 여성의 천직으로 간주되었다.³⁶⁾ 중국 지식인들이 엘렌 케이를 신여성 모델로 삼은 상황에서 빙신은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 ‘母職’과 ‘妻職’을 여성의 천직으로 여겼다.

그는 여성의 가정생활과 개인성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 문제점을 모두 가부장제의 탓으로 간주함으로써 신현모양처론과 여성주체성의 충돌을 소홀히 다루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신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가정의 ‘타자’로 위치시키므로, 가정 안에서 신여성들이 여성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켰다.

나혜석과 빙신은 양처현모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혜석은 이 사상과 자신의 개인성취 및 주체성과의 충돌을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었다. 반면 빙신은 꾸준히 여성의 개인적 가치가 가정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는 40년대까지도 『여자에 관하여』에서 “그래도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야”라는 남자의 대사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나혜석과 빙신의 양처현모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신여성들의 개인적 성취와 주체성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당시 ‘신여성’은 근대적 사상에 따라 새로 등장한 개념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이었다. 따라서 양국 사회에는 근대 교육을 받는 신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존재하고 있었다.

가) 시몬마님은 자비스러운 音聲으로 말을 한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 만졌다.

36) 김은희, 앞의 논문, 148쪽.

「꼭 심흔 사집살이 혼 손 갖고나. 女學生들 손은 바딘결 갖ㅎ다는디 네 손은
 왜 이러나」³⁷⁾

나) 저의 집 썩 방아 찧튼 일군에게서 드른 요식 新聞에 어느 녀학싱이 學校간
 다고 나가서논 몇칠 아니 드러오논고로 수식을 히보니까 어느 사디에게 썩임을
 밧아서 첩이 되엿드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머누리를 녀학싱을 엇어 왔더니 버선
 깎는디 울도 차질 줄을 몰나 모다 췌드로 디엿드란 말, 밥을 햏엿는 디 반은 텃엿
 드란 말, 날마다 四方으로 소다니며 平均한 다디식 들어 온 녀학싱의 햏담을 햏라
 면 不知其數이었다.³⁸⁾

가)와 나)는 사돈 마님과 떡 장사의 말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가 여학
 생들이 집안일을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매우 어리석다는 편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녀들은 여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인
 습적 유교 기풍이 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관습적 역할이 기
 대되었다.

또한 국권부재의 식민지 조선에서 남성 지식인들은 가정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면서, ‘양치현모론’을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론으로 여겼다. 남성 중심적 한국 사회와
 문단에서 극소수였던 신여성들은 목소리도 매우 약한 편이었다. 남성 중심적
 영역에서 양치현모론을 강렬하게 비판한다면 신여성들이 발화할 기회도 잃
 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한 나혜석은 양치현모론을 긍정하는 입장을,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와 공적 영역에 발화할 기회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빙신도 여학생들을 향한 중국 사회의 편견에 직면하고 있었다. 빙신은 나
 혜석처럼 현모양처론을 긍정하는 태도를 통해 여학생들에 대한 선입견과 그

37) 나혜석, 「경희」, 서정자 엮음, 앞의 책, 145쪽.

38) 나혜석, 「경희」, 서정자 엮음, 위의 책, 153쪽.

들의 소외를 줄이려고 하였다.

“이모네 식구들은 다 정들었다고 들었는데, 차차 개량을 생각한다면 그리 바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니에요.”

잉윤은 “쓸데없어요. 그들은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 제가 예쁘고 털털한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내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해서 요즘 여학생들의 경박한 습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주 다르게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나를 기뻐한 감정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또한 가사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량을 하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가끔은 ‘타고난 재주는 꼭 쓸모가 있다(天生我材必有用)’ ‘대장부는 어려운 일을 참고 해야야 한다’라는 두 마디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두운 가정에 일부러 넣어주고, 개조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³⁹⁾

RETRACTED

잉윤의 반역 파문은, 신여성들은 근대적 태도가 아닌 원근양치이 부합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가정을 개조할 권리와 발화권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잉윤은 다시 학교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빙신은 여성의 교육 여부가 가정의 개조 및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국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주류적 여성 교육정책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여성의 권익을 쟁취하려고 하였다.⁴⁰⁾

당시 한국과 중국에서 양치현모 사상은 주류적 여성 교육정책이었다. 나혜석과 빙신은 당대 사회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양치현모 사상을 긍정하였다. 이를 통해 두 작가는 신여성들을 향한 사회의 선입견과 소외를 줄이며, 신여성들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발화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39) 冰心, 『秋風秋雨愁煞人』, 앞의 책, 37쪽.

40) 沈麗瑛, 앞의 논문, 129쪽.

3. 비관론의 추이와 모성본능의 내적 갈등

양치현모론과 신현모양치론은 당시 한국과 중국의 주류 여성 교육정책이 었지만, 신여성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을 가정에 한정시킨다는 점을 깨닫고는 비판했다. 김일엽의 『자각』(1926)과 『꿈길로만 오는 어린이』(1927), 링수화의 『치사이(綺霞)』(1927)와 『샤오류(小劉)』(1929), 그리고 루인의 『승리 이후(勝利以後)』(1925)과 『나 돌아가는 길 어디 있는가(何處是歸程)』(1927) 등의 작품이 이 사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자각』의 여주인공 순실은 임신 8개월쯤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남편에게 절연장을 받았다. 두 사람의 결혼이 완전히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말은 부부간의 감정을 철저히 말살하였다. 순실은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했으며,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시댁에 보내고 개인성취를 위해 모성을 포기하고 진학하는 길을 택한다.

RETRACTED

어떤 때는 몹시도 어린 것이 보고 싶어서 그 집 문간에라도 몰래 가서 그것의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올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억제하나이다. 보고 싶다고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고 싶고, 두 번 만나면 자주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면 아주 곁에다 두고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니, 그렇게만 되면 아이 아버지 또 인연이 맺어진다면 내 자존심과 인격은 여지없이 깨어질 것이외다. 나는 자식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전 생활을 희생할 수는 절대로 없나이다. 자식의 생활과 나의 생활을 한데 섞어놓고 헤매일 수는 없나이다.⁴¹⁾

순실은 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인격을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낸다. 자식을 위해 불행한 결혼 생

41) 김일엽, 『자각』, 김우영 엮음, 『김일엽 전집』, 현대문학, 2012, 169쪽.

활을 하며 시어머니나 남편의 모욕을 참는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엘렌 케이의 ‘자유 이혼관’의 현실적인 실천이다. 엘렌 케이의 사상에 따르면 어떠한 결혼을 막론하고 거기에 연애가 있다면 도덕적인 것이며, 어떠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연애가 없다면 부도덕한 것이다. 엘렌 케이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 자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인격적 타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⁴²⁾ 또한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넉넉히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어머니가 이 일을 담당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양처현모론이 여성에게 강요한 자식 교육에 대한 전적인 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이 사상을 철저히 전복하였다.

그러나 이는 김일엽이 2년 전에 발표한 『인격 창조에』(1924)에서 강조한, 인격 창조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모성이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어긋난다. 그는 1년 후 발표한 『꿈길로만 오는 어린이』에서 모성에

RETRACTED

이렇게 어린이와 인연이 적은 나는 평소에 어린이에게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었다.

동무들 중에는 어린 것을 낳아가지고 상상부도하던 애착과 재미를 보느니 남편과, 재산과, 자가의 미와, 건강 전부를 모아야 어린 것 하나의 대가가 될지 말지 하다는 극단의 말을 하는 것까지 듣는 나는 암만해도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린것들 까닭에 자기의 전 생활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갖은 모욕과 학대까지도 감내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알아내이는 수는 없었다.⁴³⁾

문장의 첫머리에서 김일엽은 모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에게 어린이는 자신과 무관하며, 자신의 재산이나 자가의 미, 건강보다 못한 것이었

42) 유연실, 앞의 논문, 150~151쪽 참조.

43) 김일엽, 『꿈길로만 오는 어린이』, 앞의 책, 310쪽.

다. 어린이와 인연이 적은 김일엽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여 오욕과 학대를 참는 여성의 심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꿈이라는 무의식적 세계에서 어린이와 마주한 것은 그가 모성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 일종의 후회를 드러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이가 남의 어머니 될 때가 지났으나 잠재의식적 모성애가 발로된 것일까.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도 안타깝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고 그렇게도 나의 전 정신을 사로잡는 그 아이는 과연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내 태(胎)에서 생겨서 내 품에서 길리를 인연이 있는 어린것이 무슨 장애로 내게 태어나지를 못하여 애처롭게도 꿈길로만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⁴⁴⁾

위 인용문에서 아기를 두고 온 어머니로서 김일엽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⁴⁵⁾ 김일엽은 모성애를 위해 자신의 주체성이나 개인의 생활을 절대 희생하기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꿈이라는 무의식적 세계에 나타난 어린이는 그의 '잠재의식적 모성애'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꿈속 아기는 자신의 아기에 대한 김일엽의 그리움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모성을 포기한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후회하는 작가의 감정을 보여준다.

김일엽은 「자각」에서 여주인공의 과감한 이혼을 통해 양치현모론이 여성에게 강요한 아내의 역할을 거부했으며, 아이 양육을 거부하는 행위를 통해 양치현모론이 여성에게 강요한 어머니의 역할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그는 남성 지식인들의 지배 담론인 양치현모 사상을 철저히 전복하여, 여성의 인격과 주체의식을 지켜냈다. 반면 그는 「꿈길로만 오는 어린이」에서 꿈이라는 무의식적 세계에 등장한 아기를 통해 자신의 잠재적 모성본능을 드러냄으로써 모성을 포기한 행위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보여주었다.

동시대의 중국 여성작가들도 신현모양치 교육정책으로 좌절된 여성주체성에 주목하였다. 링수화와 투인을 비롯한 선구적 여성작가들은 근대 교육에

44) 김일엽, 「꿈길로만 오는 어린이」, 위의 책, 313쪽.

45) 최혜실, 앞의 책, 317쪽.

받고 자유를 추구하며 여자들의 권익과 개인의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던 신여성들이 막상 가정에 들어오면 이전과 달리 현모양처가 되는 모순을 형상화하였다.

링수화의 『치시아』(1927)와 『샤오류』(1929)를 함께 살펴보면 신현모양처론에 대한 그의 모순적 인식이 드러난다. 두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결혼 전까지는 공역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활발한 신여성이었다.

『치시아』의 여주인공 치시아는 원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남편과 자유연애를 통해 결혼했다. 그때까지 그녀는 신여성들이 지향하던 이상적 결혼을 이룬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남편의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바이올린을 만져본 적이 없다. 치시아는 결혼 생활을 위해 자신의 사업을 희생하지만 남편의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온 천재적인 음악가를 동경하자 남편의 비웃음만 받는다.

치시아는 아내인 남편에게
RETRACTED
 “사람이 그분과 같이만 일생을 헛살지 않을 거야.”
 하고 말했다.
 남편은 웃으면서
 “당신은 그 분을 부러워해? 여자의 허영심이 참...”
 라고 말했다.⁴⁶⁾

남편의 대답은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치시아는 자신이 현모양처로서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결코 남편의 이해와 배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편과 가정에 의해 여성의 존재가치가 판단되는 신현모양처론이 결국은 여성의 주체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에 그녀는 아내라는 역할이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방해하는 제일 큰 장애물이라 간주하고, 다음날 새벽 인사도 없이 이

46) 凌叔華, 『綺霞』, 傅光明編, 『凌叔華文集』上, 北京燕山出版社, 1998, 64~65쪽.

별편지만 남겨둔 채 음악을 배우러 유럽에 간다. 나중에 돌아온 그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음악선생이 된다.

이처럼 작가는 현모양처의 역할과 개인적 성취가 충돌하고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을 선택하고 남편에 의존하지 않아야만 인격적 자립과 타인의 존중을 획득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즉, 여성은 독립적 인격을 유지하려면 자력갱생이 전제돼야 하고, 자력갱생하려면 경제적 자립, 자기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과 인격을 위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한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이다. 작가는 『샤오류』에서 자녀들이 있는 샤오류가 결혼 생활과 개인적 성취 사이의 갈등에 직면하여 방황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샤오류는 학창 시절 현모양처 여성을 혐오하고 비웃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자신이 혐오했던 여성이 돼버렸다. 샤오류는 혼몽한 인생을 살며 자신이 지향했던 여성주체성을 잃어버렸다. 샤오류의 삶을 목격하는 ‘나는 두 성의 산타가 움을 느끼지만, 그녀의 자녀들을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하염없이 생각하면서 떠나갔다.’⁴⁷⁾

두 소설의 비교를 통해 링수화가 당시 여성에게 강요된 신현모양처론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 수 있다. 그는 이혼을 이 문제점에 대한 주요 해결책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치시아가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가 자식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링수화가 신현모양처론을 비판했다라도 여성에게 강요된 모성 담론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신현모양처론에 대해 자기모순적 인식을 지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루인도 마찬가지로 『승리 이후』(1925)와 『나 돌아가는 길 어디 있는가』(1927)에서 집안을 잘 정리하고 아이를 잘 키우며 남편을 잘 섬긴다는 신현모양처론과 완벽히 부합된 신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러나 여주인공들은 결혼 생활과 사회활동을 경험하면서 결혼 생활과 주체성을 실현하려는 욕망

47) 凌叔華, 『小劉』, 傅光明編, 위의 책, 83쪽.

이 충돌한다는 점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승리 이후』에서 자녀가 없는 여주인공들은 결혼 생활에서 좌절된 여성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역시 독신주의는 최고야, 우리는 모두 길을 잘못 들었어!”⁴⁸⁾라고 외침으로써, 독신주의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책으로 간주한다. 『나 돌아가는 길 어디 있는가』에서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신여성들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어머니가 되는 것이 모두 싱겁게 끝났어. 사업 의욕은 생명사의 지난 일이 돼버렸어. … 이게 바로 여자의 천직이구나. … 집안일을 정리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섬기는 사소한 일까지 여자를 소모할 뿐이야. 사회사업-개인의 의사로 인해 진행한 활동, 단지 더 말할 나위도 없어.”⁴⁹⁾

RETRACTED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육아를 위해 사회운동을 진행하지 못해서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현모양처의 역할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모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서 『승리 이후』의 여주인공처럼 “독신주의”를 의치지 못한다. 이에 『나 돌아가는 길 어디 있는가』의 주인공은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끝났다. 사업 흥미가 모두 생명사의 옛 자취가 되었다.”⁵⁰⁾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

링수화과 루인은 신현모양처론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성과 관련되지 않은 작품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었지만, 모성과 관련된 작품에서는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하였다. 루인은 당시 여성 교육 방법으로서의 신현모양처론에 대해 긍정하지만, 결혼 생활과 여성 주체성이 충돌하는 경우엔 의심을 품었다. 결국 이러한 모순적 인식은 소설의 여주인공들이 선택을

48) 廬隱, 『勝利以後』, 王國棟編, 『廬隱全集』卷二, 福建文化出版社, 2015, 129~130쪽.

49) 廬隱, 『何處是歸程』, 王國棟編, 위의 책, 220쪽.

50) 廬隱, 『何處是歸程』, 王國棟編, 위의 책, 230쪽.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김일엽과 링수화, 루인 등의 여성작가들은 당시 양국에서 실행되고 있던 양치현모 교육정책이 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작가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사상을 비판하였다. 김일엽 소설의 여주인공은 과감한 이혼을 통해 아내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 거부를 통해 여성에게 강요된 어머니의 역할을 부정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에 한정된 양치현모 사상을 철저히 전복하였다. 그러나 꿈에 등장한 어린이는 잠재해있던 그의 모성애를 촉발하여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링수화와 루인 소설의 여주인공들은 자신이 지향하던 결혼 생활과 실제 상황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깨닫고, 결혼 생활로 인해 공적 영역에 진출하려던 욕망을 좌절당한다. 그들은 독신주의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모성을 언급한 경우, 두 작가는 방황하는 태도를 노출하였다.

김일엽, 링수화, 루인을 비롯한 여성작가들은 양치현모론이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한정시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사상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모성본능과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 회복을 위해 비판적 태도를 고수하였다.

가) 나를 끈에 맨 들맹인 줄 아느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백 계집을 하더라도 10년을 박대하다가도 손길 한 번만 붙잡으면 헤쳐 웃어버리는 속없는 여자로 아느냐.

…(중략)…

이왕 사람이 아닌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났으니 인제는 한 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값있고 뜻있는 생활을 하여야겠나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려 나이다.⁵¹⁾

51) 김일엽, 『자각』, 앞의 책, 170~171쪽.

나) 젊은 소녀들이 모여 앉아 가장 즐겨 하는 이야기는 바로 결혼 문제다. 또 학교에 새로 온 모든 학생의 존경을 받는 음악선생님을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너희들 고 선생님이 결혼하셨는지 맞춰봐라.”

“선생님은 틀림없이 결혼한 적이 없으실 거야. 선생님은 얼마나 활발하고 예쁘지 봐, 나는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정말 좋아.”⁵²⁾

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끝났다. 사업 흥미가 모두 생명의 옛 자취가 되었다.⁵³⁾

가)와 나)에서 여주인공들은 양치현모의 역할을 그만둔 신여성들이 주체적 삶을 살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각』의 주인공 순실은 결혼 생활과 노예의 삶을 동시화하면서 “값있고 뜻있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려면 여성에게 강요된 양치현모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치사이』의 여주인공은 여성을 구속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야 인격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고, 이로써 주변인의 인격적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다)에서 여주인공은 신현모양치론으로 인한 여성주체성의 좌절을 인식하지만,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에 대해 막막해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김일엽, 링수화, 루인을 비롯한 여성작가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양치현모 사상이 여성의 자기성취를 방해하고 주체성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모성본능과의 충돌을 겪지만, 그들은 여전히 양치현모사상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양치현모론을 비판하는 강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신여성들의 여성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심화되었다.

52) 凌叔華, 『綺霞』, 앞의 책, 68쪽.

53) 廬隱, 『何處是歸程』, 王國棟編, 앞의 책, 230쪽.

4. 나오며

본고는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대표 여성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대 여성작가 소설에 드러난 양치현모론 인식의 자기모순적 양상과 의미를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2장, 3장에서는 양치현모론에 대한 긍정론과 비판론이 지닌 자기모순성을 살펴보았다.

긍정론의 경우 나혜석과 빙신이 양치현모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혜석은 양치현모사상과 자신의 개인성취 및 주체성의 충돌을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였다. 반면 빙신은 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가정 안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과 자녀 교육의 성공 여부에 따라 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판단하는 사상을 통해 여성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비판론의 경우 김일엽과 링수화, 루인 등의 여성작가들이 당시 양국에서 실행되고 있던 양치현모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이 정책이 여성의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비판하였다. 김일엽은 『자각』에서 과감한 이혼을 통해 아내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거부를 통해 여성에게 강요된 어머니의 역할을 부정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으로 한정하는 양치현모 사상을 철저히 전복하였다. 그러나 꿈이라는 무의식적 세계에 등장한 어린이는 그의 마음속에 잠재된 모성애를 촉발해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링수화와 루인은 가정에 한정된 현모양처 역할이 공적 영역에 진출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독신주의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모성을 언급한 경우 두 작가는 방황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여성작가들은 사회의 분위기나 자신의 경험에 따라 양치현모론에 상이한 태도를 취하였다. 양치현모론을 긍정하거나 비판하

는 입장은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아직 낡은 시대에 여성작가들이 여성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긍정하는 입장은 여성주체성과 괴리를 보여도 신여성들을 위해 발언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고, 비판하는 입장은 모성본능과의 내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인격적 삶과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노력들은 양국 사회에서 신여성과 여성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긍정론과 비판론을 각각 일정한 가치를 지닌 신여성 담론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RETRACTED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일엽, 김우영 엮음, 『김일엽 전집』, 현대문학, 2012.
나혜석, 서정자 엮음, 『나혜석 전집』, 푸른사상, 2013.
冰心, 卓如編, 『冰心全集』, 海峡文艺出版社, 1999.
凌叔華, 傅光明編, 『凌叔華文集』上, 北京燕山出版社, 1998.
廬隱, 王國棟編, 『廬隱全集』卷二, 福建文化出版社, 2015.

2. 단행본

- 에이드리언 리치,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胡適, 「美國的婦人」, 『新青年』5卷3號, 1918.9.15.
梁啟超, 『倡設女學堂啟·飲冰室合集』第1冊, 中華書局, 1941.
葉紹鈞, 「女子人格問題」, 『新潮』제1권 제2호, 1919.2.1.

3. 논문

-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 '신여성'의 주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수연, 「羅蕙靜의 自己意識과 女性과 社會關係」,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은희, 「清末 이래 1930년대까지의 中國의 女性 想像」, 『國語文學』第63輯, 2013.
박용옥, 「유교적 여성관의 재조명」, 『한국여성학 - 종교와 가부장제』 창간호, 한국여성학회, 1980.
_____, 「일제의 식민지 여성 정책과 민족문제」, 남인숙 외 9인 지음, 『여성과 한민족』, 학문출판(주), 1996.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연구」, 『비교문학』 20, 한국비교문학회, 1995.
_____, 「복종과 인내의 에토스에서 분노의 파토스로 - 김일엽의 「자각」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제142권, 2019.
_____, 「신여성 작가의 소설에 재현된 신여성과 구여성의 관계 - 나혜석 · 김명순 · 김일엽을 중심으로」, 『문예운동』 제146호, 2020.
안태윤, 「일제 하 모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요민나, 「나혜석과 冰心の 작품에 나타난 여성상에 대한 비교연구 - 1910~30년대의 작품을 중심으로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유연실, 「근대 한·중 연애 담론의 형성 - 엘렌 케이(Ellen Key) 연애관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79, 중국사학회, 2012.
윤광옥, 「근대 형성기 여성문학에 나타난 가족 연구」,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덕화, 「영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초기 해방 두 여성 작가들의 여성성의 실천적 의미 비교연구」, 여성문학연구, 2006.
이태숙, 「여성성의 근대적 경험양상」,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전정연, 「식민지 시대 여성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崔銀晶, 「重建家庭與女性關係－以冰心, 陳衡哲為中心」,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2.
- 戴麗娜, 「論五四女作家對賢妻良母概念的“誤解”」, 暨南大學碩士論文, 2016.
- 馮舒潔, 「五四女作家小說中的母性書寫」, 南京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劉傳霞, 「冰心創作的“新賢妻良母主義”及其建構」, 『重慶社會科學』, 2013.
- 劉延紅, 「女性解放與賢妻良母角色－冰心筆下的女性形象的啟示」, 『揚州大學學報』, 2009.
- 馬美愛, 「“五四”女作家筆下“賢妻良母”新內涵」, 『湛江師範學院學報』, 2004.
- 潘延, 「現代版賢妻良母－冰心女性觀探析」, 『蘇州鐵道師範學院學報』, 2001.
- 沈麗瑛, 「冰心與羅惠錫早期小說比較研究」, 對外經濟貿易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_____, 「冰心, 羅惠錫, 宮本百合子文學的女性意識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騰玉敏, 「五四婚戀小說的敘事與性別」,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張韋華, 「五四－代女作家寫作的自我想像」,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周文曉, 「五四新女性角色沖突與文學寫作－以“後五四”時期的女性問題為中心」,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朱文璐, 「中國現代文學中的母親形象初探」,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RETRACT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lf-contradictory aspects and meanings of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a Good Wife and Loving Mother in the Works of Korean and Chinese Female Writers

XU LUZHI*

This paper was to compare and review the self-contradictory aspects and meanings of the recognition of the concept of a good wife and loving mother that revealed in the works of Korean and Chinese female writers in the 1920s. The Korean and Chinese Female writers took different attitudes toward the concept of good wife and loving mother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society or their own experiences. Positions affirming or criticizing the concept show the various seeking processes of female writers to realize female subjectivity in an era where the concept of new women is still unfamiliar. The affirmative position secured an opportunity to speak for new women even if it showed a gap between female subjectivity and the criticizing position was able to design a life worthwhile and personal life while experiencing internal conflicts with maternal instinct.

Key words : new women, the concept of good wife and loving mother, female subjectivity, self-contradiction, motherhood

논문투고일 : 2022년 4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5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5월 31일

*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PHD candidate.

RETRACTED